

‘광주미술상’ 30주년 발자취 기린다

‘청류탁세展’...내년 2월 1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황영성·강연균·우제길 등 원로, 수상작가 65명 ‘한자리’ 한국화·서예 등 다양한 장르...광주미술 현재·미래 조망

청류탁세(淸流擢世). 맑은 물줄기가 세상을 씻어낸다.

광주미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광주미술상이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내년 2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리는 ‘청류탁세’ 전시다.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회화와 조각, 서예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주미술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원로·중진 선배 미술인들이 뜻을 모아 1995년 창립했다.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많은 청년작가들이 작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후원은 사회적으로 미진해 지속적인 창작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강연균·박상섭·오승윤·황영성·우제길·김형대 화백 등 당시 중진 원로 작가들은 (사)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지금까지 30년 간 매년 청년작가를 선정,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통해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작가들이 기금을 모아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지역미술계 선후배간 소통은 물론 광주미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광주미술상은 총 33명의 작가(1개 단체, 2인 공동수상 3회 포함)에게 돌아갔으며 총 3여여명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 원로 작가들



오건탁 작 '비어가는 인생길'

비롯해 중견, 청년작가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 작품 및 역대 수상작가 총 67명의 67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에 참여하는 역대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들은 현재 한국 현대미술과 지역 미술의 중추를 이루며 독자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들이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미디어, 서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시된 작품을 통해 광주미술

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건탁 (사)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이사장은 “민간단체로서 이처럼 신진작가 육성에 적극적인 것은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은 우리 지역 미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예술계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해 온 광주미술상의 가치를 돌아볼 수



강연균 작 '동물의 왕국'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광주미술상 운영위원(명지대 석좌교수)은 “광주미술상은 광주 청년 작가의 꿈이자 긍지라 할 수 있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30년을 유지해온 재단 구성,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수상자 결정까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예술가로 살기 녹록지 않을 불안한 시대 여건 속 광주가 세계로 뻗어나갈 예술자 산이자 커다란 힘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광주미술상이 지속되며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線으로 쌓아올린 서사적 실경

우병출 초대전, 28일까지 동구미로센터

선(線)의 작가 우병출 초대전이 광주에서 4년 만에 열린다. 오는 28일까지 동구미로센터 1층에서 열리는 작가 초대전에서는 뉴욕 전경을 담아낸 6m 대작을 비롯해 100호 이상 작품 8점과 최근작인 30호 이상 작품 5점 등 총 15점을 선보인다.

나인갤러리 전속 작가인 우병출은 선으로 끝을 본다는 신념으로 하루 14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한다. 한뼘 한뼘 그려낸 작품에는 작가의 땀과 인고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을 중심으로 선과 공간의 조화를 구축해나간 작가는 2009년부터는 세계 주요 도시의 거리를 걷고 세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서사적 전경을 캔버스에 펼쳐낸다.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미국 뉴욕 록펠러 분수대 앞,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 라파에트 백화점 전망대, 시애틀 폰넬 다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하와이 와이알라에, 홍콩의 마천루 등 눈에 보이는 실경이 객관적으로 구조화됐다.

유화물감이 찍힌 0.6mm의 작은 붓으로 담담하게 절제된 선을 이어가가는 그의 작업은 마치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seeing(뉴욕 브루클린브릿지, 맨하탄 브릿지)'

디지털화한 것 같다. 마치 ‘본다는 것’을 함축해낸 이미지와 일이 연상된다.

그가 캔버스에 실경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자신만의 유한한 선으로 연결해가는 방식이기에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 집요한 끈기를 요구한다.

선을 긋는 행위는 확인, 검토, 편집, 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미시의 서사적 실경을 구축한다.

/최명진기자

청년작가 3인 3색...‘少·素·笑’

오혜성, 윤부열, QQ(최다솜)작가...29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청년작가 3인이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과 철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낸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29일까지 2024년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참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오혜성, 윤부열, QQ(최다솜) 작가의 작품 42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少·素·笑(소·소·소)’다. 조심스럽지만(少) 그 바탕이 질박하고 순수해(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여유와 유머(笑)를 갖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오혜성 작가는 자신의 이름처럼 별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탐구한다. 작가는 무한한 우주 공간 속 빛을 잃어버린 별에 주목했다. 그중에서도 별과 별 사이 개입해 빛을 인식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중간



QQ(최다솜)작 '천란한 순간'

자적 역할 ‘혜성’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그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관계, 존재에 대한 의미를 구도자와 같이 탐색한다.

윤부열 작가는 떠난 자에 대한 애절함과 그리움, 남겨진 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 사람들의 시선 등에서 오는 이별의 슬픔을 작품에 담아낸다. 자신의 가족사를 기반으로 나무와 선, 눈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삶 속 이어지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에너지를 응축한 ‘선’을 통해 다채로운 화면을 구현한다.

QQ(최다솜)작가는 물의 결정체 혹은 카메라의 깨진 픽셀이나 깨진 거울 조각을 통해 모자이크 방식을 실험한다. 물의 생명성과 순환성을 통해 인간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며, 모자이크 패턴에서는 회화의 본질인 색과 도형, 관계들의 구성에 관한 탐구가 돋보인다.

/최명진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이번호
220603-중-139779